

“市民の力で仁川の新たな歴史をつくってまいります。”

“시민의 힘으로 인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愛する300万の仁川市民の皆さま。2015年 乙未年 新年の朝が明けました。今年は青羊の年。進取的で平和な青羊の気運は、個人や家庭に大きな幸運を招くと言われております。この特別な気運が、私たちの仁川市と市民の皆さんに溢れますように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

仁川の創造的な発展の資産をどのように活用するかによって、私たちの未来が左右していく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経済成長の機会を仁川の新たな飛躍のために、確実な発展へと繋げてまいります。

まずは、経済の活性化を通して豊かな市民の生活を実装致します。長期的な経済発展の動力であるロボット、自動車、バイオ、観光、マリナー、サービスなど、8大戦略事業の詳細実行計画をそれぞれ樹立し、推進ロードマップを確定してまいります。特に、今年予定されているプレジデント・カップゴルフ大会、世界本の首都、世界教育フォーラムなど、大規模な国際行事を成功的に開催し、MICE産業の育成を行い、様々な雇用創出に努めてまいります。

第二に、ダイナミックな世界都市を目指します。仁川経済自由区域の投資環境を積極的に改善させ、IFEZを国の成長動力として育成します。また、最近爆発的に増加している「ヨウコ」を仁川に吸収させるための戦略的な計画と、差別化されたマーケティングを強化してまいります。

第三に、私たちの競争力をもとに、仁川だけの価値創造に努めます。仁川の近代文化資産と内航再開発を連携し、元都心を創造的に復元させる「都市再生戦略計画」を新たに策定し、新旧の調和を成していきます。また、「仁川発KTX事業」などの都市の競争力確保のため、仁川中心の独自の交通網を構築してまいります。

第四に、市民中心の市政を実現させ



ます。市民と共にする市長になるため、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参加の窓口を継続的に設けてまいります。昨年開庁以来初めて開催した‘市民円卓討論会’で、皆さまのご意見を傾聴したように、‘市民幸福政策諮問団’と‘公約市民点検団’など、様々なチャンネルを置き、疎通してまいります。

愛する仁川市民の皆さま！偉大な市民の力で、仁川の新たな歴史を作ってまいります。乙未年新年、飛上のため仁川の力強い羽ばたきに、期待し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진취적이고 평화로운 청양의 기운은 개인과 가정에 큰 행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기운이 우리 인천시와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인천의 창조적인 발전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성장의 기회를 인천의 새로운 도약으로 확실히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통해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장기적 경제발전 동력인 로봇, 자동차, 바이오, 관광, 마린, 서비스 등 8대 전략사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정된 프레지던트스컵 골프대회, 세계 책의수도, 세계교육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MICE 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역동적인 세계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해 IFEZ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우커’들을 인천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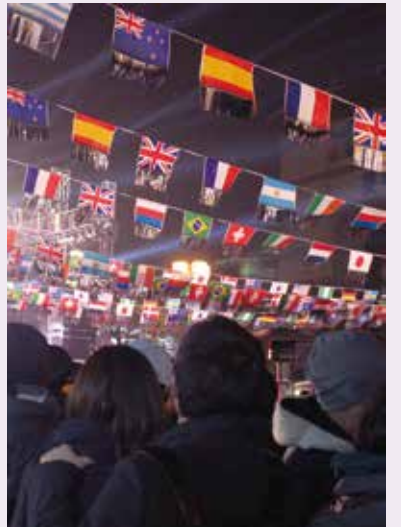
셋째,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만의 가치창조에 힘쓰겠습니다. 인천의 근대문화자산과 내항재개발을 연계해 원도심을 창조적으로 복원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신·구의 조화를 이뤄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발 KTX 사업’ 등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천 중심의 독자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중심의 시장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소통과 참여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지난해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개최한 ‘시민원탁토론회’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한 것처럼, ‘시민행복정책자문단’과 ‘공약시민점검단’ 등 다양한 채널을 두고 소통해 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인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비상을 위한 인천의 힘찬 날갯짓을 기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Photo News



私たちは一つ! 우리는 하나!!

12월最後の夜を明かす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の野外広場には、万国旗が翻った。華やかな照明を浴び光輝く万国旗は、国際都市仁川の現在の姿だ。労働者、結婚移住民、留学生などコリアンドリームを夢見て、各分野で活動する人々が、風になびく万国旗のように仲良く肩を組み合っている。国籍や言語、肌の色の違いは、文化の多様性を表現する。その多様性は、新しい文化に生まれかわっていく。大韓民国の多文化時代は、過去、仁川から始まった。海と空の道が世界に開かれている仁川に、2015年乙未年の新年が明けた。2015年も、私たちは一つ。

12월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만국기가 걸렸다. 화려한 조명을 받아 빛나는 만국기는 국제도시 인천의 현재 모습이다. 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만국기처럼 다정스럽게 어깨동무를 한다. 국적과 언어, 피부색의 다름은 문화의 다양성으로 표현된다. 그 다양함은 새로운 문화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다문화 시대는 과거 인천에서부터 시작됐다. 바다와 하늘의 길이 세계로 열려 있는 인천에 2015년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다. 2015년에도 우리는 하나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Photograph and article by 김민영(김민영)編集長 · gem0701@hanmail.net

DASARANG Incheon Multicultural Society Newspaper

仁川多文化新聞-다사랑을 인터넷에서도
出会うことができます

<http://www.dasarangnews.com>

私たちの手作りの味、味わってみませんか？

저희 손 맛 좀 보실래요?

中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手女時代’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손녀시대’



「手に手を取り合って」という歌がある。88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主題歌でもあり、世界の人々の調和と平等を表すオリンピックの主題歌として、いまもなお広く語られている。最近放映されているJTBC芸能番組「非正常会談」でも、11カ国の青年たちの意見が分かれたときには、和を確かめる意味で「手に手を取り合って」が歌われている。このように全世界の人々が手を取り合うことの意味は格別だ。「手に手を取り合って、壁を越えて」という歌詞のごとく、言語と国境、文化の違いを超える第一歩にもなっている。

仁川市中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のボランティアグループ、‘手女時代’も、私たちに手を差し伸べている。彼女らは、タイ式のハンドマッサージを学び、韓国の療養病院などを回り、ハンドマッサージボランティアを続けている。見知らぬ人の手を握り、マッサージまでするというのは意外と簡単ではない。奉仕でなければ、握ることなど皆無だからだ。しかし、彼女らは先に手を差し伸べ、ゆっくりと「手」で挨拶をしていく。初めてボランティアに出かけたときは、

奉仕する側もどこか話が続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ものの、次第に心を開く術を身につけていった。スキンシップによるボランティアだからか、短期間で親しくなることは、意外と簡単だった。何よりも心が動かされる。

カオナさん(中国)は、「これまで韓国で様々な無料教育や恩恵を受けました。その感謝の気持ちとして、私も何かしてあげたいという気持ちになったんです。ハンドマッサージを通し、お年寄りと一緒に活動できることがとっても嬉しいんです。故郷の両親のように思えるんですよ。」と笑ってみせる。手から前腕まで丹念にマッサージをしながらも、疲れた様子は全く見せない。

手女時代ボランティアグループは、総19人が活動している。その中でスケジュールに合わせ、10人程度が集まって奉仕していく。初期の移住女性にとっては「奉仕」という概念さえ見慣れぬものだった。しかし、彼女らが奉仕を身を持って感じるこまでに、そう長くはかからなかった。

「他の人を喜ばせてあげられるのがいいですね。お年寄りの体が不自由なのを見ると、心が痛みますが、マッサージをして少しでも助けになることにやりがいを感じるんです。」ソブン(中国, 40)さんの言葉だ。彼女は「センターで学んだマッサージを夫にもしてあげよう。とっても気持ちいいといってくれます。」と伝える。

このように自宅で義理の両親や、夫に直接マッサージしてあげられると、ボランティアの満足度は一番高い。普段はしにくい対話も、ハンドマッサージをしながら自然とすることができる。奉仕活動と家族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問題解決まで、一石二鳥というわけだ。

センターの社会福祉士のジン・ミンスさんは、「多くの方がハンドマッサージのボランティアに関心を持ち、参加する傾向にあります。今はまだ、ボランティアをする人が多くないため、療養病院を集中的に訪問していますが、これから人員が増えてゆけば、週末と平日を活用し、様々な場所を訪問しボランティアをする予定なんですよ。」と語った。

手に「手 잡고」という歌がある。88서울올림픽 주제가이기도 했는데, 세계인의 화합과 평등을 잘 나타내는 올림픽 주제가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최근 방영중인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서도 11개국 청년들의 의견이 분분해 질 때면 화합을 다지는 의미로 ‘손에 손 잡고’를 부른다. 이렇듯 전 세계인이 손을 잡는다는 의미는 특별하다.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노래말처럼 언어와 국경, 문화차이를 뛰어넘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한다.

인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나눔봉사단 ‘손녀시대’도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 그들은 태극식 손마사지를 배워 한국의 요양병원 등을 돌며 손 마사지 봉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마사지까지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봉사가 아니고서야 잡을 일이 통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들은 먼저 손을 내밀고 천천히 ‘손’ 인사를 건넨다.

첫 봉사를 나갔을 때는 봉사자들도 어색함에 말을 잊지 못했었지만, 이내 조금씩 마음을 두드리는 방법을 익혔다. 스킨십을 통한 봉사다보니 단기간에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훨씬 수월했다. 무엇보다 마음이 움직인다.

가오나씨(중국)는 “그동안 한국에서 다양한 무료교육과 혜택을 받았어요. 감사한 마음에 저도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손 마사지로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뻐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 같아요.”라며

웃어 보인다. 손과 팔뚝까지 정성껏 마사지를 하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다.

손녀시대 나눔봉사단은 총 19명이 활동 중이다. 그중 일정에 맞춰 1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봉사를 나간다. 초창기 이주여성들엔 ‘봉사’라는 개념조차 낯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봉사를 몸소 느끼는 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았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어르신들이 편찮은 모습을 보면 맘이 안좋은데, 마사지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 서분(중국, 40) 씨의 말이다. 그녀는 “센터에서 배운 마사지를 남편에게 해주기도 해요. 시원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라고 전한다.

이렇듯 집에서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직접 마사지를 해줄 수 있어 봉사자의 만족도가 더욱 높다. 평소 어렵던 대화도 손마사지와 함께라면 자연스러워진다. 봉사와 가족 간의 소통문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센터 사회복지사 진민수 씨는 “많은 분들이 손마사지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봉사인원이 많지 않아 요양병원을 집중적으로 나오지만 인원이 늘어나면 주말과 평일을 활용해 다양한 봉사 장소로 찾아갈 예정입니다.”라고 말한다.

글·사진 차지은 기자
文·写真 -チャ・ジウン(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한누리학교募集要綱

한누리학교 모집 요강

仁川한누리학교는 신입생을隨時募集している。中途入国子女及び外国人家庭の子どもたちの韓国への適応と教育を責任を持って行う한누리학교は、1年の在学後、もともと通うことになっている在籍校へ復歸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委託機関である。基本教育課程と特化教育課程がうまく配置され、オーダーメイド型の教育を提供し、一般の小中高校と同等の学歴として認定される。

入学を希望する家庭は、한누리학교のホームページにある募集要項の「委託教育申込書」をダウンロードし、作成した後、在学中の学校に提出すればよい。現在学生が所属している学校には、「委託教育推薦書」をダウンロードして作成し、学生が提出した申込書と一緒に仁川한누리학교にファックス(032-442-2108)し発送する。詳しい問い合わせ先は、仁川한누리학교(032-442-2102~4)まで。

인천 한누리학교가 신입생을 수시 모집한다.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 적응과 교육을 책임지는 한누리학교는 1년 재학 후 원적교로 복귀가 가능한 위탁교육기관이다. 기본 교육과정과 특성화교육과정을 적절히 배치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초, 중,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된다. 입학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한누리학교 홈페이지 모집요강에서 '위탁교육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 후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서는 '위탁교육추천서'를 다운로드 작성하여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와 함께 인천한누리학교로 팩스(032-442-2108) 발송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한누리학교(032-442-2102~4)로 문의하면 된다.



「私にぴったり!合ったプログラムで新年の計画を立てよう」

“내게 딱! 맞는 프로그램으로 신년을 계획하자”

2015仁川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のプログラム 2015 인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仁川地域の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2015年に行われるプログラムを新たに計画した。各センター別の特色が反映されたプログラムには、自分と家族、そして皆を調和させる多様なストーリーがある。自分が必要な情報や体験プログラムは何だろうか?あなたにぴったりのプログラムを選び、2015年、すっきりと出発してみよう。



仁川外国人労働者支援センターは

外国人労働者の寮を掃除し整理するだけではなく、リフォームまでもしてくれる「寮・ラブハウス」を昨年に引き続き、今年も行う。これに加え、外国人労働者と文化探訪を共にする計画だ。勤務地を離れ博物館や記念館を訪れストレスを解消する、仁川への理解を高める文化プログラムとして、毎年人気が高い

問い合わせ: 032-431-5757 担当 アン・フンス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기숙사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넘어 리모델링까지 해주는 '기숙사리브하우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한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탐방도 계획하고 있다. 근무지를 벗어나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찾아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인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매년 인기가 높다.

문의: 032-431-5757, 담당: 안홍수



富平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フィリピン語、英語の通訳・翻訳サービスと、結婚移民者メンタリングプロジェクトを着実に継続している。特に韓国生活の定着に役立つ指導事業は、メンターとメンティーの両方が結婚移民者だ。メンターは、韓国入国1年以上の者とし、韓国語は中級以上であれば申請できる。韓国文化と生活情報などを、先に入国した先輩を通して学ぶことができるというメリットがある。

問い合わせ: 031-511-1800 担当 リュウ・ウンソン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필리핀어, 영어 통·번역서비스와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는 멘토링 사업은 멘토와 멘티 모두 결혼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 멘토는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상 된 자로 한국어 중급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문화와 생활정보 등을 먼저 입국한 선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의: 031-511-1800, 담당: 류은선



延寿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多文化を理解する同伴体験を準備中だ。多文化児童と一般児童が互いに理解し合い、共同体意識を涵養させるための統合プログラムで、全4会期ごとに行われるプログラムでは、動物園体験や干潟体験、料理体験、スキーキャンプなど、様々な体験を一緒に分かち合う。世界を共に夢見る今回のプログラムは、多文化家族と一般家族が一步近づき良ききっかけとなるだろう。

問い合わせ: 032-851-2740, 担当 グ・ウンモ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이해하기 동반체험을 준비한다.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이 서로 이해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통합프로그램이다. 총 4회기에 걸쳐 분기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동물원체험과 갯벌체험, 요리체험, 스키캠프 등 다양한 체험을 함께 나누게 된다.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게 할 이번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 될 것이다.

문의: 032-851-2740, 담당: 구은모



中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訪問サービス」を拡充する。島地域(永宗島)ウンナム洞に、多文化教育場を開き、永宗と龍遊地域の多文化家族を教育する計画だ。また、入国5年目の結婚移民者のニーズを積極的に反映し「子どもの健全な成長のための親教育」も実施する。子供を教育する難しさを解決するため、自己主導型学習の方法、効果的な宿題指導、教科課程の分析などを提供する。

お問い合わせ: 032-891-1094 担当 イ・ミジン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섬 지역(영종도) 운남동에 다문화교육장을 열고 영종과 용유지역의 다문화가족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입국 5년 차 결혼이민자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교육'도 진행한다.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방법과 효과적인 숙제지도, 교과과정 분석 등을 제공한다.

문의: 032-891-1094, 담당: 이미진



桂陽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ママの童話読み聞かせ」と題し言語と感性、創造力をグングン伸ばそうとしている。ピンクドリーム図書館で、毎週1回行われるプログラムで、童話読み聞かせをする先生の話とともに、面白い童話の国への旅行が始まる。対象は幼児期(6~7歳)と小(1~2年生)。ピンクドリーム図書館は、昨年メリーケイ・コリアと、チョロク・子供財団の後援で建設された。

問い合わせ: 032-541-2860~1

担当者 カン・グンファ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이야기'로 언어와 감성, 창의력을 키워 줄 계획이다. 핑크드림도서관에서 매주 1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동화구연선생님의 이야기와 함께 재밌는 동화나라의 여행이 시작된다. 대상은 유아(6~7세)와 초등(1~2학년)이다. 핑크드림도서관은 지난해 메리케이코리아와 초록어린이재단

의 후원으로 건립됐다.

문의: 032-541-2860~1, 담당: 강근화



西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多文化夫婦のための「ABC(Age・Behavior pattern・Culture)統合プロジェクト」を実施。「ABC統合プロジェクト」は、年齢と行動様式、文化の違いを克服するための、家族成長プログラムである。「夫婦探求生活」と「夫&妻の生き生きトーク」、「子供の教育(児童体育・美術活動)」など、体系的な学習計画と内容で構成され、家族が共に成長することが目的が。対象は、配偶者との年齢差が10歳以上の多文化家族で、4~13歳の子供を養育していること。

お問い合わせ: 032-569-1560 担当 キム・ジンヒ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부부를 위한 'ABC(Age・Behavior pattern・Culture)통합프로젝트'를 실시한다. 'ABC 통합프로젝트'는 연령과 행동양식, 문화차이를 극복을 위한 가족성장 프로그램이다. '부부탐구생활'과 '남편&아내들의 생생토크', '자녀교육(아동체육·미술활동)' 등 체계적인 학습계획과 내용으로 구성된 온 가족이 함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10세 이상, 4~13세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이다.

문의: 032-569-1560, 담당: 김진희



江華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江華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きちんと通じるトントン(通)(統)家族作り」を行う。プログラムは、家族間の危機改善と、学校と教師、地域社会が共に連携し円滑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するよう支援する。現在、江華には6万7千人と、多文化家族が急増している。それだけ親子、夫婦間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重要になっている。「先生とママとトントン(通通)」、「ママと子供とトントン」、「ママと友達とトントン」、「デントを張って家族でトントン」など、さまざまな状況での多様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プログラムを用意している。

お問い合わせ: 032-933-0980

担当 クウォン・ヒソン

강화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잘 통하는 통(通)통(統)가족 만들기'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가족간의 위기개신과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관계와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강화에는 6만 7천명으로 다문화가족 증가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만큼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소통이 중요해졌다. '샘이랑 엄마랑 통통', '엄마랑 아이랑 통통', '엄마랑 친구랑 통통', '텐트 치고 가족끼

리 통통' 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문의: 032-933-0980, 담당: 권희선



南洞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片親家族の事例管理事業」を展開。この事業は、社会福祉共同募金会による支援を受けた、多文化危機家庭支援事業である。多文化家庭の片親家族と女性家長家族を対象に、心理カウンセリングや心理検査、グループカウンセリングを実施し、親の役割、教育および感情コーチングによるペアレンタル教育を並行する。これに加え、家族関係改善のため家族ドラマ治療やヒーリングキャンプを実施する。また、自助会を介し、ボランティア活動への参加と文化交流、ライフサイクル別の親の会などを実施予定だ。

お問い合わせ: 032-467-3912 担当 キム・ソナ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 다문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가족 및 여성가장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와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부모역할교육 및 감성코칭으로 부모교육도 병행한다. 더불어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가족드라마 치료와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또한 자조모임을 통해 봉사활동 참여와 문화교류, 생애 주기별 부모모임 등을 가질 계획이다.

문의: 032-467-3912, 담당: 김선아



南区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は

「青春!人と文化を IT-DAを進行。多文化家族と仁川大学の学生が共に行う地域シェアイベントは、ベトナムライスヌードルや、日本、カンボジア料理を直接作り、文化疎外階層のお年寄り200名に配る計画だ。多文化理解のための今回の行事は、1月21日(水)~22日(木)まで「世界のありとあらゆる空間 IT-DA」で行われる。

お問い合わせ: 032-875-1577 担当 バク・ドンギョ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청춘! 사람과 문화를 IT-DA'를 진행한다. 다문화가족과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는 지역 나눔행사로 베트남 쌀국수와 일본, 캄보디아 음식을 직접 만들어 문화소외계층 어르신 200 명에게 배달할 계획이다. 다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번 행사는 1월 21일(수)~22일(목)까지 '세상의 별이별 공간 IT-DA'에서 진행된다

문의: 032-875-1577, 담당: 박동규

月尾伝統公園、月尾文化館 体験

월미전통공원 월미문화관 체험



アン・ソヒョン氏と彼女の娘ユン・ジフイ嬢
안서현씨와 그의 딸 윤지희양

新年が明けた。各種新年会や祝宴が続く、家族が集まり食事をするが多くなるこの時期。こんな時、きれいに着こなした韓服と手の込んだ御馳走で家族を迎えてみよう。韓服と御馳走が表す礼儀。目上の方にとって、これにも増す贈り物があるだろうか。

さわやかな新年を準備するため、移住女性のソン・アッリン(フィリピン)さんと、アン・ソヒョン(フィリピン)さんが「月尾文化館」を訪れた。月尾伝統公園内に位置する「月尾文化館」は、韓国の伝統生活と宮中文化、韓国料理などを体験することができる空間だ。伝統文化展示館は、生活文化、宮廷文化、企画展示にわかれ常時展示されており、内部には場に合った小物や韓服が用意され、直接試着することができる。

特に生活文化展示室は、人間の誕生から死に至るまでの文化的な行事が収められ、韓国人の一生を圧縮している。また、伝統的な婚礼服を身につけた婚礼体験もできる。アン・ソヒョンさんは「伝統婚礼服は、韓国で結婚した時に着たのが初めてでした。嫁いで来た時初めて習ったんですけど、直接見るとまた新たな感動を覚えます。韓国で生活するのに必要な知識を直接体験できる良い所だと思います。」と伝える。

宮廷文化展示室では、王様の日、食膳、宮中音楽と料理について展示が続く。君主と皇后が着た韓服は、韓国人にはもちろんのこと、

外国人観光客にも人気がある。ソン・アッリンさんは、皇后の服を着て、カチュ(豊かな髪に見せるために頭の上にのせた三つ編みのかつら)まで頭に乘せた。ところが、ここでオッゴルム(韓服のチョゴリのひも)が問題となる。「韓服の着付けを習ったものの、オッゴルムはいまだに迷ってしまうんです。」という彼女。結局、展示室のスタッフの助けを借り、オッゴルムに成功した。「きれいですか。王妃が着ていた服を身につけると王妃になったような気分ですね。もう韓服を着るのに心配はいりません。」と笑ってみせる。

アン・ソヒョンさんも一緒に皇后の唐衣(皇后が普段着た韓服)に袖を通し、娘さんと一緒に写真を撮った。アン・ソヒョンさんの娘ユン・ジフイ(8)ちゃんは「

秋夕や旧正月には、おばあちゃんの家に行くとき韓服を着るけど、普段はあまり着ません。ママと一緒に韓服を着て写真まで撮れて本当に嬉しいです。」王様の食膳と伝統音楽、そして韓国料理を眺めながらユン・ジフイちゃんが尋ねる。「ママ、今から何を見に行くの?」

새해가 밝았다. 각종 신년회와 잔치가 이어지고, 가족들이 모여 밥 한끼 먹는 일이 많아지는 때다. 이럴 때, 정갈하게 차려입은 한복과 잘 차려진 한상으로 가족들을 맞이해 보자. 한복과 한 차림 상이 주는 예의. 어른께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산뜻하게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이주여성 손알린(필리핀) 씨와 안서현(필리핀) 씨가 ‘월미문화관’을 찾았다. 월미전통공원 내에 위치한 ‘월미문화관’은 한국의 전통 생활상과 궁중문화, 한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통문화전시관은 생활문화, 궁중문화, 기획 전시로 나뉘어 상시 전시되고, 내부에는 상황에 맞는 소품과 한복들이 마련돼 직접 입어 볼 수 있다. 특히 생활문화전시실엔 인간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문화행사를 담아 한국인의 일생을 압축시켜 놓았다. 또한 전통혼례복을 입고 혼례체험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안서현 씨는 “전통혼례복은 한국에서 결혼할 때 입어보곤 처음이에요. 처음 시집을 때 배웠던 것들이지만 직접 보니 느낌이 새로워요. 한국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라고 전한다.

궁중문화전시실에선 임금님의 하루, 수라상, 궁중음악과 음식에 대한 전시가 이어진다. 임금과 중전이 입던 한복은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다. 손알린 씨는 중전의 옷을 입고, 가채까지 머리에 얹었다. 그런데 여기서 웃고름이 문제다. “한복입



ソン・アッリンさん 손 알린 씨

는 법을 배웠지만 웃고름은 아직까지도 헛갈려요”라는 그녀. 결국 전시실 직원의 도움으로 웃고름 매기에 성공했다. “예뻐요. 왕비가 입던 옷을 입었더니 왕비가 된 기분이예요. 이제 한복입는 것도 걱정이 없네요”라며 웃어보인다.

안서현 씨도 함께 중전의 당의(중전이 평상시에 입던 한복)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넣고 딸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안서현 씨의 딸 윤지희(8) 양은 “추석이나 설이면 할머니댁에 갈 때 한복을 입는데, 평소엔 많이 안입거든요. 엄마랑 같이 한복입고 사진찍어서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한다. 임금님 수라상과 전통음악 소리, 한국 음식들을 바라보며 윤지희 양이 묻는다. “엄마 이제 뭐 보러 가요?”

글·사진 차지는 기자
文·写真-チャ・ジウン(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月尾文化館の全景 월미문화관 전경

韓服オッゴルムの結び方 한복 웃고름 매는 방법

1. 長いゴルムは左手、短いゴルムは右手で支えるように持つ。
긴 고름은 왼손, 짧은 고름은 오른손에 바치듯이 들어준다.
2. 右の短いゴルムが、上にくるようにし、X(エックス)字になるよう交差させる。
오른쪽의 짧은 고름은 고름을 위로가게 하여 X(엑스)자 모양으로 교차시킨다.
3. 上にきた短いゴルムを、長いゴルムの下に巻いて上から引出す。この時、左手で短いゴムを掴んで、輪を作り、右手は長いゴルムを掴み輪を作り、短い輪の中から引っぱり出す。
위로 올라간 짧은 고름을 긴 고름 아래에 감아 위로 뽑는다. 이때 왼손으로 짧은 고름을 잡아 둥근 원을 만들고 오른손은 긴 고름을 잡아 고리를 만들어 짧은 고리의 원 안으로 잡아당겨 준다.
4. 最後に、二本のゴルムを合わせて形を整える。
마지막으로 두 가닥의 고름을 합쳐서 모양을 정리한다.

박스 / 토막정보



子供と一緒に韓国語を勉強しよう

아이와 함께 한국어 공부해요

EBS多文化ハングル教育サイト「ドゥリアン」 EBS 다문화 한글교육 사이트 ‘두리안’

自宅を始め、学校、レストラン、病院、公共の場所に至るまで、韓国で生活をするのに、韓国語は必須だ。仕事や家事で、勉強する時間が足りないならば「オンライン韓国語教育」に挑戦してみてはどうだろう。母と子が一緒にになり、韓国語の勉強をするのにひけをとらない。何よりも、場所と時間の制約から自由である。基礎会話から上級韓国語まで、一步一步進んでみよう。知らぬ間に家族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不自由しなくなることだろう。

韓国教育放送公社EBSでは、外国人労働者及び多文化家庭のためのハングル教育サイト「ドゥリアン」を運営している。利用者が自由に難易度を選択し学ぶことができ、多文化家庭の母と子が一緒に利用するのに持ってこいだ。子供の韓国語教育を心配する多文化家庭には朗報となる。

「ドゥリアン」は、韓国語が全くわからない人のため「母国語で学ぶ韓国語」講座を設けている。母国語は英語、日本語、中国語、ベトナム語、フィリピン語、マレー語、タイ語、モンゴル語、ロシア語、カンボジア語など、10カ国語。ほとんどの言語で支援しているため、誰もが容易に利用できるというのが最大の利点だ。また、ベトナム、中国、日本語で支援する「二重言語教育」も

あり、中途入国の子供たちの基礎韓国語教育に最適である。

小学生から高校生を対象にしたオーダーメイド型「韓国語教育」など、子供と共に学ぶ良い講座が用意されている。「K-POPで学ぶ多文化韓国語」「スクリーン韓国語」など、基礎から上級まで興味をそそる会話講座も目立つ。

韓国語のほかに英語教育を共に行うことが可能だ。幼児と小学生を対象に企画した「うちの子供の遊び場」は、イソップ物語やボロロ、英単語カード、科学アニメなど、興味を掻き立てる言語教育用の映像でいっぱい。この他にもEBSは、韓国文化を知る「文化シェアの場」というメニューで、ドラマ、ドキュメンタリー、教養、料理情報などを提供している。

利用方法は、EBS会員登録をした後、ドゥリアン (ebsd.co.kr) のホームページに接続すればよい。韓国語コースは、目的の講座に申し込めば、即利用が可能だ。すべての講座は無料で受講でき、「マイドゥリアン」に入り、受講講座を調べることもできる。一方、ドゥリアン掲示板では、韓国料理のレシピや多文化ニュースを多言語で閲覧することが可能だ。

집에서 시작해 학교, 식당, 병원, 공공장소까지. 한국생활을 하는데 한국어는 필수다. 일하랴, 살림하랴,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온라인 한국어 교육'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기에 손색없다. 무엇보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다. 기초회화부터 고급한국어까지 차근차근 나아가 보자. 어느새 가족과의 소통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는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 교육사이트 '두리안'을 운영 중이다. 대상자가 자유롭게 난이도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어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엄마가 함께 이용하기 좋다. 아이의 한국어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다문화 가정에겐 희소식일 것이다.

‘두리안’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모국어로 배우는 한국어’ 강좌가 마련돼 있다. 지원모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말레이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 등 10개국어다.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베트남, 중국, 일본어로 지원되는 ‘이중언어 교육’도 있어 중도입국 자녀들의 기초 한국어교육으로 제격이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 등 아이와 함께하면 좋을 강좌들이 준비돼 있다. ‘K-POP으로 배

우는 다문화 한국어, ‘스크린 한국어’ 등 기초부터 고급 회화까지 흥미를 유발하는 강좌도 눈에 띈다.

한국어 외에 영어교육도 함께 할 수 있다.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기획된 ‘우리아이 놀이터’는 이솝이야기와 뽀로로, 영단어카드, 과학애니메이션 등 흥미위주의 언어교육 영상이 가득하다. 이밖에도 EBS는 한국 문화를 알 수 있는 ‘문화나눔터’ 메뉴를 통해 드라마, 다큐, 교양, 요리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EBS 회원가입 후 두리안 (ebsd.co.kr)홈페이지 접속하면 된다. 한국어 배움터에서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모든 강좌는 무료이며, ‘마이두리안’에서 수강강좌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두리안 게시판에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한국요리 레시피와 다문화 소식을 열람할 수 있다.

글·사진 차지는 기자
文·写真 -챌-쥬온(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ウォッカ」一杯にこめられたロシア文化

‘보드카’ 한 잔에 담긴 러시아 문화



める。ロシアではウォッカを水のように飲む。ウォッカという名前も、ロシア語で「水」という意味の「voda」から取ったものだ。ロシア人一人あたり1年に消費するウォッカの量は60瓶にもなるというのだから、彼らのウォッカ好きは言い尽くせないほどだ。それだけ愛酒文化も発達した。酒の席ではいつも乾杯。お酒が飲めない人でも最初一杯目は、必ず一気をするのが礼儀である。一杯さえ飲めないのなら、水を注いでも乾杯をしなければならぬ。ウォッカは、カクテルの材料としてよく知られている。他の酒とよくマッチするためだ。ウォッカの国であるロシアも、多彩な文化と「調和」をなしている。最大の領土を有すロシアは、多民族の文化が豊かに調和した国として有名である。特に芸術や文学へ関心が深く、文学作品はもちろんのこと、「バレエ」や「オペラ」のようなクラシック芸術も、ロシアでは、誰もが楽しむ大衆文化として定着して久しい。

韓国の冬。この寒さに打ち勝つためにどんな方法があるだろう。熱々のスープ料理が一番先に思い浮かぶ。しかしロシアの冬は違っている。寒さを乗り切るために、彼らは「ウォッカ (vodka)」を選ぶ。首都モスクワを基準とすると、冬の平均気温が零下10度にまで下がる寒さに、ロシアの人々は、アルコール度数が40度以上にもなるウォッカで体を暖

韓국의 겨울. 이렇게 추운 날씨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뜨끈한 국물요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러시아의 겨울은 다르다. 추운 날씨를 버티기 위해 그들은 ‘보드카(vodka)’를 선택했다. 수도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겨울 평균기온이 영하 10도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알코올 40도 이상의 보드카로 몸을 데웠다. 러시아에선 보드카를 물처럼 마신다. 보드카라는 이름도 러시아어로 ‘물’이라는 뜻의 ‘voda’에서 따온 것이다. 러시아인 한 명이 1년에 소비하는 보드카의 양이 60병에 달한다고 하니, 그들의 보드카 사랑은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다. 그만큼 애주문화도 발달했다. 술자리에선 항상 건배를 한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라도 첫 잔은 꼭 비우는 것이 예의다. 한 잔도 못 마신다면 물을 따르더라도 건배해야 한다.

보드카는 각테일의 재료로 자주 만나볼 수 있다. 성질이 다른 주류와 조화가 잘되기 때문이다.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도 다양한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다민족의 문화가 풍부하게 어우러진 나라로 유명하다. 특히 예술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깊다. 문학작품은 물론 ‘발레’와 ‘오페라’같은 클래식한 예술도 러시아에서는 누구나 즐기는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글·사진 차지는 기자
文·写真 -챌-쥬온(차지은)記者·minsable@hanmail.net

ロシアウォッカ文化 / 러시아 보드카 문화

フィリピーノに向ける心はいつも「ON AIR」

필리피노들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ON AIR'

コミュニター ジェニー金さん 커뮤니케이터 제니 김 씨



誰もが困難を経験し、乗り越えていくごとに成長していく。見知らぬ異国の地で、新たな文化に触れ適応する過程も成長の一部だ。この過程を経て、新しい人生を設計するジェニー金さんは、また別の「自分」たちに手を向けることをためらわない。フィリピーノ(フィリピン人)のコミュニターで活動する彼女の日常は、今日もためらうことなく「ON AIR」だ。

누구나 어려움을 겪어 낼수록 성장한다. 낯선 이국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적응을 하는 과정 역시 성장의 일부분이다. 그 과정을 겪어 내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제니 김 씨는 또 다른 '자신'들에게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필리피노(필리핀인)들의 커뮤니터로 활동하는 그녀의 일상은 오늘도 거침없이 'ON AIR' 다.

私はフィリピーノのコミュニター

韓国在住のフィリピーノたちに広く知られている名前がある。それは、ジェニー金(37)さん。彼女は現在、フィリピーノ韓国配偶者協会の副会長をはじめとし、フィリピン外国人労働者協会、フィリピン労働者新聞、フィリピン写真同好会協会などで活動している。これに加え、韓国産業人力公団で通訳をし、韓国の健康振興院が運営する移住女性緊急相談員として働いている。このような多様な経験をもとに、2010年から本格的にフィリピーノ・コミュニターとして活動する彼女は、外国人労働者と結婚移民者を助けている。

特に彼女の声は音楽と共に電波に乗り、異国の地で生活するフィリピーノの寂しさを癒してくれる。多文化音楽放送のDJとして彼女の実力は、より輝く。この活動全て、韓国語を話すようになって

から始まった。

「初めて韓国に来て韓国語ができず、辛かった時もありました。だから、私のように言葉に困っているフィリピーノたちを助けてあげたかったんです。そうこうしているうちに、あちこちで活動す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나는 필리피노 커뮤니케이터

한국 거주 필리피노들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 있다. 제니 김(37)씨다. 그는 현재 필리피노 한국배우자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필리핀외국인근로자협회, 필리핀근로자신문, 필리핀자선동호회협회 등에서 활동한다. 더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역을 하고 한국건강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주여성긴급상담원으로 일을 한다.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필리피노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는 그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돕고 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음악과 함께 전파를 타며 이국땅에서 생활하는 필리피노들의 외로움을 달랜다. 다문화음악방송 DJ로서 그의 역량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은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못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처럼 언어로 곤란을 겪는 필리피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第2のジェニーに会い成長する

ジェニー金氏は、フィリピンのセブが故郷だ。そこで韓国人の夫に出会い結婚をし、息子を産んだ。2003年、息子の教育のために夫の国へ息子と二人だけで訪れ、姑のいる仁川南区朱安洞に住み始めた。工場に通いながら社会生活を始めた。彼女はそこで韓国語が全くできず、心に大きな傷を受けた。

「韓国人だけでなく、同じ外国人にも傷つけられたんですよ。お互い言葉がうまく伝われば、誤解が生まれなかっただろうが、そうではなかったために外国人同士で、よくケンカになったりもした。そんな時、彼女はいつも中立の立場をとった。互い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うまくいかないからで、決して憎いわけではないと思ったからだ。彼女の記憶の中で言葉のせいで起き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断絶は、あまりにも大きかった。だからこそ、言葉がいかに大切であるか悟ることができた。

彼女はその時、心に決めた。「韓国に長く住んで、韓国語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ら、外国人が私のように傷つくことがないようにしてあげたい。私が大変な思いをしたことを、助けてあげたい。」

言葉だけでなく、文化の違いもある。

両国の文化は似ているところも多いが、全く違っているところもある。ここに来たら、ここの文化を尊重し、適応していく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フィリピン文化も尊重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のが彼女の考えだ。それは、互いに欲を少しずつ捨てればできることだと説明する。

二歳だった息子は、いつの間に13歳になった。これまで彼女は韓国で、多くの経験や様々な仕事をした。英語講師として活動したり、韓国語が苦手なフィリピーノに代わって通訳をしたり、官公署の仕事を助けたりした。わからないところは方々に問い合わせ、不安なフィリピーノたちを助けた。このことは、ジェニー金さんを成長させ、その力は、第2のジェニーたちに伝わっていった。

제2의 제니를 만나며 성장하다

제니 김 씨는 필리핀 세부가 고향이다. 그곳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 2003년 아들의 교육을 위해 남편의 나라로 아들과 단 둘이 건너와 시어머니가 있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살았다. 공장에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말을 전혀 못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한국사람 뿐 아니라 같은 외국인에게도 상처 받았어요.” 언어가 서로 잘 전달되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외국인들끼리 종종 다투기도 했다. 그럴 땐 그는 언제나 중립이었다. 서로 소통이 안된 것이지 미워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기억 속에서 언어로 인한 소통의 단절은 매우 컸다. 그래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 때 다짐했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해서 한국말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나 같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힘들어했던 것을 돕고 싶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도 있다. 두 나라 문화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분명 다른 점도 있다. 이곳에 왔으면 이곳의 문화를 존



担当PD와放送を準備している
담당PD와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January 1, 2015 • DASARANG

중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필리핀 문화도 존중해 줬으면 하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건 서로 조금씩 욕심을 버리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두 살이던 아들은 어느덧 13살이 되었다. 그동안 그는 한국에서 많은 경험과 다양한 일을 했다. 영어 강사로 활동하며 한국말이 서툰 필리피노들을 대신해 통역을 하고 관광서 일을 도왔다. 그가 모르는 부분은 이곳저곳에 문의해 불안해하는 필리피노들에게 도움을 전했다. 그 일들은 제니 김 씨를 성장시켰고 그 힘은 제2의 제니들에게 전달됐다.

多文化音楽放送のDJとして情報を伝える

彼女の挑戦はいつも進行形だ。その好奇心は、多国籍のDJが活動する多文化音楽放送のDJとして、その活動領域を広げた。昨年12月24日、クリスマスイブにも、彼女はソウル麻浦区ヨムリ洞で、ラジオ放送を録音した。ブースの外の「ON AIR」がついたり消えたりし続ける。多文化音楽放送は、結婚移住女性と外国人労

働者のための放送だ。彼女は毎週4回、放送のために電車に乗る。「クリスマスイブなので、クリスマスソングをたくさんかけようと思ってるんです。」フィリピンでは9月からクリスマスを準備する。クリスマスから新年までが、1年で最も大事な日であり、祝祭の期間だ。食べ物を分け合いパーティーをする日なので、心浮き立つキャロルをリスナーに贈る計画だ。

彼女が多文化音楽放送と縁を結んだのは、ゲストとして出演してからだ。声がいいと放送関係者に褒められ、名刺を受け取った。フィリピンDJがフィリピンに帰国することを知り、保管しておいた名刺を手し、放送関係者にメッセージを送った。「ひょっとして、DJが必要な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放送について何も知らない彼女は、放送に興味を持ち始めた。また、フィリピンの人々にもっと様々な情報を伝えてあげたいとも思った。こうして2013年3月からウンジン財団がデジタルスカイネットと共に運営している、多文化音楽放送のフィリピンDJになった。

彼女は、放送に必要なコメントやお便り選び、選曲など、内容すべてを自ら用意している。電車に乗ったり、公共交通機関を利用する際の、細切れ時間も逃さない。ニュースを検索し、外国人に知って欲しい情報は、即かつ簡単に翻訳し、彼らと共有する。彼女の活動すべてが、放送に活かされている。「人と情報は既にあつたので、放送は大変じゃなかったんですよ。フィリピーノたちへ、常に開かれている彼女の電話は、積極的な彼女の人生のように、いつも「ON AIR」だ。

다문화음악방송 DJ로 정보를 전하다

그의 도전은 언제나 진행형이다. 그 호기심은 다국적 DJ가 활동하는 다문화음악방송 DJ로 영역을 넓혔다. 지난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임에도 그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 라디오방송을 녹음 중이다. 부스 밖의 'ON AIR'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 다문화음악방송은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방송이다. 그는 매주 4회 방송을 위해 전철을 탄다.

“크리스마스 이브라 크리스마스 노래를 많이 들려 드릴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9월부터 준비한다.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며 축제의 기간이다. 음식을 나누고 파티를 하는 날이라 흥겨운 캐롤을 청취자들에게 선물할 계획이다.

그가 다문화음악방송과 인연을 맺은 것은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부터다. 목소리가 좋다고 방송관계자로부터 칭찬과 함께 명함을 받았다. 필리핀 DJ가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알게 돼 보관하고 있던 명함의 방송관계자에게 문자를 넣었다. ‘혹시 DJ 필요하신가요?’ 방송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던 그는 방송이 궁금했다. 또 필리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고 싶었다. 그렇게



息子と一緒に時間を見て力を得るジェニー金さん
아들과 함께한 시간을 보며 힘을 얻는 제니김씨

2013년 3월부터 웅진재단이 디지털스카이넷과 운영하는 다문화음악방송의 필리핀 DJ가 됐다. 그는 방송에 필요한 멘트와 사연 선정, 선곡 등을 위한 모든 자료를 스스로 준비한다. 전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투리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뉴스를 검색하고 외국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정보는 바로 간단하게 번역해서 그들과 공유한다. 그의 모든 활동은 방송에 응용된다. “사람과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기에 방송이 어렵지 않아요.” 필리피노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그의 전화는 적극적인 그의 삶만큼 항상 ‘ON AIR’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キムミンヨン(김민영)編集長・gem0701@hanmail.net



伝統受け継ぐ仁川の手 | 風呂敷

福を共に包みこむ‘風呂敷’

복(福)을 함께 싸다 ‘보자기’

魔法にかけられたように、何かをすっぽ리包みこむと、風呂敷は花を咲かせる。布で作られた風呂敷はその多用さで、中に包んだ中身をわくわくさせる「秘密」と変える。初夜の新婦のチョゴリのひもを解くように、慎重に解いていく風呂敷の感触は、受けとる人に、楽しみをもう一つ贈る。風呂敷を包む手が「福」も一緒に包み込むことから、それはそれは大切に渡される。

韓国の伝統には昔から「包む文化」がある。風呂敷は、その包む文化の一部である。包装紙や鞆がなかった時代までさかのぼると、風呂敷がその役割をしっかりとこなしていた。その使い道は多種多様。子供をおぶってぐっすり寝かせるためのおくるみや、本を包み肩に背負ったり、弁当を包んだりもした。こしらえた食事を覆うカバーとして使ったり、日よけや、屋外では敷物としても使われた。包む文化は「サム(包んで食べる料理の総称)料理を作った」という説もある。それほど風呂敷の出現は、多様な文化を作りあげている。

마술이라도 부리듯 무엇이든 포~옥 감싸 안으며 보자기는 꽃을 피운다. 천으로 만든 보자기의 유연함으로 그 속에 싸인 내용물은 설레는 ‘비밀’이 된다. 첫날밤 새색시의 웃고름을 풀듯 조심스럽게 풀어내는 보자기의 손맛은 받는 이로 하여금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보자기를 싸는 손길에는 ‘복’도 함께 담으며 귀하게 전달된다.

우리나라 전통에는 ‘싸개문화’가 있다. 보자기는 그 싸개문화의 일부다. 포장지와 가방이 없던 시절로 거슬러 오르면 보자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다. 그 쓰임새는 다양하다. 아이를 업고 곤히 잠을 재우던 포대기와 책을 말아 어깨에 둘러매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기도 했다. 밥상을 차려 놓고 음식 위의 덮개로도 사용했고 햇빛 가리개와 야외에서는 깔개로도 쓰였다. 싸개 문화는 ‘음식의 싸움을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그만큼 보자기의 출현은 다양한 문화를 만든다.



글·사진 김민영 편집장

キムミンヨン(김민영)編集長・gem0701@hanmail.net

寒さも退く歴史の場

추위도 비껴나간 역사의 장소

博物館に「仁川」がある 박물관에 ‘인천’이 있다

子供の冬休みは静かだ。夏休みのようなにぎやかなバカンスもなく、寒さのために野外活動も難しい。時間は多いのに、何をすればいいのかわからない時には、博物館にでかけてみるといい。歴史と物語が詰まった温かい博物館こそ、家族の冬のお出かけコースとして最適だ。

仁川市立博物館

韓国初の公立博物館である仁川市立博物館は、仁川地域の歴史を一目で見ることができる。特に、昨年ブームを巻き起こしたドラマ「星から来た君」のロケ地であることから、観光客の旅行コースとして定着した。仁川市立博物館の常設展示は、仁川の歴史を多様に展示している。歴史1室は、先史時代から高麗時代までの仁川で発掘された遺物を中心にし、歴史2室では、朝鮮時代から近代期まで仁川の生活の姿を遺物や模型などを介して見ることができる。仁川の歴史に加え、工芸室では三国時代の土器から朝鮮白磁までの陶磁遺物、仏教工芸、朝鮮時代の木家具などが展示されている。ドラマ「星から来た君」の撮影地でもある工芸室の向かい側には、ドラマで重要な役を果たした「オクピニョ」が展示されている。工芸室に続く企画展示室には、多種多様なテーマで特別展が開かれる。来る2月1日まで〈2014企画特別展〉「古くからの隣人、華僑」を展示中だ。また、企画展示室の隣の隙間空間に設けられた「小さな展示室」は、大規模博物館では見ることが稀な、小規模テーマの展示が行わ



れる。個性あふれるテーマであるだけに、小さなスペースも見逃してならない見どころの一つだ。

- ・観覧時間 午前9時～午後6時
(毎週月曜日、旧正月・秋夕 当日休館)
- ・住所 仁川延寿清涼160番通り26' (オクリョン洞)
- ・問い合わせ先 +82-32-440-6750~1

아이들의 겨울방학은 고요하다. 여름방학처럼 떠들썩한 바캉스도 없고, 추운 날씨 때문에 야외활동도 어렵다. 시간은 많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박물관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도 좋다. 역사와 이야기가 가득한 따뜻한 박물관이야말로 겨울철 가족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다.

고려시대까지 인천에서 발굴된 유물을 중심으로, 역사 2실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근대기까지 인천의 생활모습을 유물, 모형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천의 역사 이외에도 공예실에서는 삼국시대 토기부터 조선백자까지의 도자유물과 불교공예, 조선시대 목가구 등을 전시 중이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이기도 하며, 공예실 맞은편으로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옥비녀’가 전시돼 있다.

공예실에서 이어지는 기획전시실은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이 열린다. 오는 2월 1일까지는 〈2014기획특별전〉‘오래된 이웃, 화교’가 전시된다. 또한 기획전시실 옆 틈새공간에 마련된 ‘작은 전시실’은 대형 박물관에선 보기 힘든 소규모의 테마전시가 열린다. 개성 넘치는 주제로 가득 채워진 작은 공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중 하나다.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관)
- ・주소
인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옥련동)
- ・문의 : (032)440-6750~1

水道局山タルドンネ博物館

1960年、70年代仁川の貧民街である水道局山の昔の姿を復元した。辛かっただけに思い出となったあの頃。人間臭い水道局山タルドンネの路地が、そこに繰り広げられる。元来松林山やマンス山と呼ばれた地名は、近代開港期に水道水を入れておく配水池を設置したことから水道局山と変わった。

- ・観覧時間 午前9時～午後6時
(毎週月曜日、旧正月・秋夕 当日休館)
- ・問い合わせ先 +82-32-770-6130~4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1960년, 70년대 인천의 달동네인 수도국산의 옛 모습을 복원해 놓았다. 고단하지만 그래서 더 추억이 된 그 시절, 사람냄새가 나던 수도국산 달동네의 골목 골목이 그곳에 펼쳐진다. 본래 송림산 혹은 만수산이라 불리던 지명은 근대 개항기, 이곳에 수도물을 담아두는 배수지를 설치하며 ‘수도국산’으로 바뀌었다.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관)



ノクチョンジャ博物館

ノクチョンジャは、1000年前の先祖たちの生活が垣間見られる貴重な遺物である。発掘されたノクチョンジャの観覧と、陶磁器の製作過程を見ることができる歴史展示室、現代陶芸を展示する企画展示室では、陶器の趣きと生活が感じられる。また、「陶芸正規教育コース」と「陶芸一日体験コース」は、子供と大人と一緒に楽しめる体験中心の学習の場となっている。

- ・観覧時間 午前9時～午後6時
(毎週月曜日、旧正月・秋夕 当日休館)

녹청자박물관

녹청자는 1000여 년 전 선조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유물이다. 발굴된 녹청자 관람과 함께 도자기의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역사전시실과, 현대도예를 전시하는 기획 전시실에서 도자기의 멋과 생활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도예정규교육과정’과 ‘도예일일체험과정’으로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위주의 학습장소다.

-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관)



不世出の都市風流

불세출의 도시풍류



「コーヒーコンサート」は、毎月1回、水曜日の午後2時に開かれるマチネコンサート(Matinee Concert)だ。比較的安価であることと、新鮮な入れたてのコーヒーが、観客が選んだコーヒーコンサートの魅力だ。2015年「コーヒーコンサート」の最初の舞台では、カヤグム、琴、大琴、笛などの8人の演奏者が集まった国楽アンサンブル「不世出」がシナウィ(韓国の即興的な器楽合奏音楽)の感性を繰り広げる。民謡、三条など、伝統音楽の固有性と即興を基に、今日の感性に合った音楽を聴かせてくれる。

- 日時: 1月21日(水) 午後2時
- 場所: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小公演場
- チケット: 全席1万5千ウォン

‘커피콘서트’는 매달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Matinee Concert)다. 비교적 적은 가격과 갓 뽑은 신선한 커피는 관객이 뽑은 커피콘서트만의 매력이기도 하다. 2015년 ‘커피콘서트’의 첫 무대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등 여덟 명의 연주가가 모인 국악앙상블 ‘불세출’이 시나위의 감성을 펼친다. 민요, 산조 등 전통음악의 고유성과 즉흥을 기반으로 오늘의 감성에 맞는 음악을 들려준다.

- 일시: 1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전석 15,000원



バンドデーのモンニ

밴드데이의 몽니

訴える力、濃厚な声、しっかりした演奏力、はっきりとした個性を持つメンバーたちの絆を誇るモンニは、強烈なサウンドとは裏腹なソフトで暖かい歌詞により、10代から40代までの広いファン層を持つ感性ロックバンドだ。切ない愛の物語から様々な日常的な感情まで、多彩な感性を表わしているモンニの歌は、耳にすっと入ってくるメロディが聞く者をさらに楽しませてくれる。

- 日時: 1月23日(金) 午後8時
- 場所: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小公演場
- チケット: 全席2万ウォン

호소력 짙은 목소리, 탄탄한 연주력, 뚜렷한 개성을 지닌 멤버들 간의 끈끈한 호흡을 자랑하는 몽니는 강렬한 사운드와 대조되는 부드럽고 따뜻한 노랫말로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팬층을 확보한 감성 록밴드다. 애절한 사랑이야기부터 다양한 일상의 감정까지, 각양각색의 감성을 담아내고 있는 몽니의 노래는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를 품어 듣는 이를 더욱 즐겁게 한다.

- 일시: 1월 23일(금) 오후 8시
-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전석 20,000원



ユン・ハンコンサート「New Year's Party」

윤한 콘서트 'New Year's Party'

自分の音楽に深みを加え公演をする、ポップピアニスト ユン・ハンは、今回の舞台で「Someday my prince will come (Frank Churchill)」、「I'll be seeing you (Sammy Fain)」などの直接編曲したジャズの名曲をはじめ、ピアノ、コントラバス、トランペットを使った多彩なソウルジャズなどを披露する。一本の映画を見るように、全てのパートが完璧である音楽を通し聞こえてくるユン・ハンならではのスペシャルストーリーを期待してもよいだろう。

- 日程: 1月24日(土) 午後7時
- 場所: 仁川総合文化芸術会館 小公演場
- チケット: 全席3万ウォン
- お問い合わせ: エンティキャット 1588-2341

자신의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공연을 하는 팝피아니스트 윤한은 이번 무대에서 ‘Someday my prince will come(Frank Churchill)’, ‘I’ll be seeing you(Sammy Fain)’ 등 직접 편곡한 재즈 명곡을 비롯해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트럼펫의 풍부한 소울 재즈 등을 선보인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모든 부분에 완벽을 기한 음악을 통해 들려줄 윤한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하다.

- 일시: 1월 24일(토) 오후 7시
-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전석 30,000원
- 문의: 엔티켓 ☎1588-2341

Calendar January

14 wed

性教育と性暴力予防教育 ミュージカル「大切なわたしの体」

・西区文化会館大ホール

・午前10時40分

・1万5千ウォン

☎ 580-1135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뮤지컬 '내 몸은 소중한요'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40분

・전석 1만5천원

☎ 580-1135

17 sat

보로로 드림콘서트

・仁川総合芸術文化会館 小公演場

・午前11時、午後2時、4時

・全席 3万5千ウォン

☎ 1566-6551

뽀로로 드림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 오후 2시 / 4시

・전석 3만5천원

☎ 1566-6551

18 sun

보로로 드림콘서트

・仁川総合芸術文化会館 小公演場

・午前11時、午後2時、4時

・全席 3万5千ウォン

☎ 1566-6551

뽀로로 드림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 오후 2시 / 4시

・전석 3만5천원

☎ 1566-6551

21 wed

2015 커피콘서트 I 「不世出の都市風流」

・仁川総合芸術文化会館 小公演場

・午後2時

・全席 1万5千ウォン

☎ 1588-2341

커피콘서트 I 「불세출의 도시풍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 1588-2341

21 wed

人形ミュージカル「おなら試合」

・西区文化会館大ホール

・午前10時40分

・1万5千ウォン

☎ 580-1135

인형 뮤지컬 '방귀시합'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40분

・전석 1만5천원

☎ 580-1135

22 thu

新年音楽会「ウィーン少年合唱団 来韓公演」

・南洞ソレアートホール大ホール (ソレ劇場)

・午後7時30分

・R席5万ウォン、S席3万ウォン

☎ 453-5710

신년음악회 '빈소년 합창단 내한공연'

・남동소아트홀 대공연장 (소래극장)

・오후 7시30분

・R석 5만원, S석 3만원

☎ 453-5710

22 thu

2015 富平아트センター 新年音楽会

・富平アートセンターヘナリ劇場

・午後8時

・VIP席 5万ウォン、R席 4万ウォン、S席 3万ウォン、視野障害席 2万ウォン

☎ 500-2000

2015 부평아트센터 신년음악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시야장애석 2만원

☎ 500-2000

23 fri

バンド・モンニ

・仁川総合芸術文化会館 小公演場

・午後8時

・全席 2万ウォン

☎ 1588-2341

밴드데이. 몽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2만원

☎ 1588-2341

24 sat

ユン・ハンコンサート「New Year's Party」

・仁川総合芸術文化会館 小公演場

・午後7時

・全席3万ウォン

☎ 1588-2341

윤한콘서트 'New Year's Party'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3만원

☎ 1588-2341

25 sun

家族ミュージカル「宝島」

・仁川総合芸術文化会館 小公演場

・午後2時、4時

・全席3万ウォン

☎ 070-5017-1551

가족뮤지컬 '보물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4시

・전석 3만원

☎ 070-5017-1551

28 wed

口腔教育ミュージカル「ディンディチカフカ」

・西区文化会館大ホール

・午前10時40分

・1万5千ウォン

☎ 760-3457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울

・오후 7시

・6천원, 학생 무료

☎ 760-3457

30 fri

仁川市立劇団 第69回 定期公演「メデア ネイチャー」

・仁川総合芸術文化会館 小公演場

・午後7時30分

・一般 2万ウォン、学生 1万ウォン

☎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메디아 네이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 1588-2341

31 sat

仁川市立劇団 第69回 定期公演「メデア ネイチャー」

・仁川総合芸術文化会館 小公演場

・午後7時30分

・一般 2万ウォン、学生 1万ウォン

☎ 1588-2341

인천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메디아 네이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30분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 1588-2341

安全で快適な仁川のため、こんなに変わる

안전하고 쾌적한 인천 위해 이렇게 달라진다

仁川市は今年、女性障害者の出産費用支援対象を拡大し、すべての飲食店での喫煙を禁止する。何よりも市民が安全で快適に事業をくり広げること、障害手当を増やすこと、奨学金の拡大など、教育基盤を拡充する。2015年乙未年に市民生活で、変わることは何か調べてみよう。



▲ **仁川ポスコ高校学校 開校** 仁川で第二の自律型私立高・仁川ポスコ高が、3月に松島国際都市に開校される。仁川市居住の学生を対象に、毎年8学級240人規模で選抜する。

▲ **인천포스코고등학교 개교** 인천에서 두 번째인 자율형 사립고 인천포스코고가 3월에 송도 국제도시에 개교한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8학급 240명 규모로 선발했다.

▲ **在外国民の住民登録が可能** 在外国民が国内に30日以上居住する目的で入国する場合、住民登録証を発行することが可能となる。今年からは在外国民の住民登録の方法は、住民登録抹消者の場合は、帰国後に再登録をし、住民登録がない者は、帰国後に初登録をすればよい。住民登録証は、在外国民の入国時に発行することを原則とし、国外移住者が出国前に申請する時にも発行が可能だ。在外国民登録証の発給は17歳以上からが対象となる。

▲ **재외국민 주민등록 가능**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금년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방법은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귀국 후 재등록하고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귀국 후 최초 등록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 입국 시에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국외이주자가 출국 전 신청할 때도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 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은 17세 이상부터가 대상이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대상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된다.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의 지원금은 종전과 같지만 총 예산이 4천만원에서 1억2천100만원으로 늘어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

▲ **低所得の片親家族養育手当での引上げ** 低所得の片親家族に支給される児童の養育費の金額が、7万ウォンから10万ウォンに引き上げられる。支援対象は、12歳未満の児童で、満15歳未満の児童を養子縁組した家庭には養子縁組・養育手当を拡大支援する。支援額は、1人当たり月15万ウォン。

인천시는 올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무엇보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업을 펼치며 장애수당을 늘리고, 장학금 확대 등 교육기반을 확충한다. 2015년 올미년 시민생활 중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수당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금액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미만의 아동, 5천 400명이다.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만 15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입양양육 수당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당 월 15만원으로 거주지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면 된다.

▲ **奨学金・メンタリング参加大学の拡大** グローバル人材育成奨学金を昨年、全体の上位3%から4%に、ドリーム・希望奨学金は昨年、50%から77%に成績範囲を広げた。メンタリング参加大学も4大学、延世大、仁荷、仁川、京仁教育大学となる。メンター学生数は、1,200人に増加。

▲ **장학금·멘토링 참여 대학 확대**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을 작년 전체 상위 3%에서 상위 4%로, 드림·희망 장학금은 작년 50%에서 77%로 성적 범위를 넓힌다. 멘토링 참여대학도 4개 대학으로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경인교대다. 멘토 학생 수는 1천 200명으로 늘어난다.

▲ **自殺遺族支援事業を施行** 仁川市自殺予防センターは、家族が自殺で死亡した場合、心労と痛みを癒すための「心の抱擁」事業を新たに実施する。心理カウンセリングプログラムを運営し、遺族哀悼費の33万ウォンと、月5万ウォンの心理治療費が支援される。

▲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 시행** 인천시자살예방센터는 가족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심정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마음 안아주기'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가족 애도비로 33만원과 월 5만원의 심리 치료가 지원된다.



▲ **空港鉄道・永宗駅開通** 12月、空港鉄道・青羅駅と雲西駅間で、永宗駅が開通する。永宗空都市の入居者等、永宗島住民の交通の便が改善される見通しだ。

▲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12월 공항철도 청라역과 운서역 사이에 영종역이 개통된다.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등 영종도 주민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 **大型廃家電、無償訪問回収施行** 大型廃家電製品の廃棄時に、手数料が課せられたが、来年からリサイクルセンター・ウンダム専門担当班が直接家庭を訪問し、無償で回収する。昨年までは、高さ1m以上の廃家電を捨てる場合、郡・区役所に申請後、有償シールを購入し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市は今年からインターネットのホームページ(15990903.or.kr)やコールセンター(1599-0903)で申請した場合、無償で大型廃家電を回収する事業を展開する。

▲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시행** 대형폐가전제품 배출 때 수수료를 받았지만 내년부터 재활용센터 운담전담반이 직접 가정을 방문, 무상 수거한다. 지난해까지는 높이 1m 이상의 폐가전을 버릴 경우 군·구청에 신청한 뒤 유상스티커를 구입해 배출해야 했다. 시는 올해부터 인터넷 홈페이지(15990903.or.kr)나 콜센터(1599-0903)으로 신청할 경우 무상으로 대형 폐가전을 수거하는 사업을 벌인다.



▲ **승용차선택요일제 참여 혜택 확충**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의료기관 종 합검진비 할인이 추가로 더해진다. 그 외 혜택으로는 자동차세 3% 추가 할인, 대중교통요금 최 고 7%할인, SK에너지 주유시 최고 120포인트 적립, 할인가매점 이용요금 5~10%가 할인된다.

▲ **全地域生活安全指導サービス** 仁川全地域を対象に「生活安全指導」サービスが実施される。主に交通・災害・治安や子供の交通安全、女性の夜道の安全性に関する情報を提供するサービスだ。ホームページ(www.safemap.go.kr)、スマートフォン・プレイストア(Android)、またはアプリストア(iPhone)で「生活安全指導」を検索し、インストール可能。

▲ **전 지역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지도’가 서비스된다. 주로 교통·재난·치안이나 어린이교통안전, 여성발길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홈페이지(www.safemap.go.kr)를 보거나,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생활안전지도’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 **水仁線 松島駅~仁川駅開通** 12月、水仁線松島駅~仁川駅7.4kmが開通。2012年、烏耳島から松島まで13.1kmの開通に続き、水仁線が全線開通する。

▲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개통** 12월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7.4km가 개통된다. 2012년 오이도에서 송도까지 13.1km가 개통한 데 이어 수인선이 완전 개통된다.

▲ **公共勤労事業の勤務条件** 低所得失業者に職場を提供する公共勤労事業の勤務条件が変更。今年から変わる勤務条件は、週5日5時間、勤務期間は3ヶ月、賃金は1日27,900ウォンに調整され、参加資格は、各段階別の申請日現在、満18歳以上の仁川市民で、財産は、1億3,500万ウォン以下でなければならない。青年失業、中小企業人材支援、低所得層の住宅環境改善、公共勤務事業所、事後管理事業など、雇用優先推進事業として行なわれる。

▲ **공공근로사업 근무조건**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의 근무조건이 변경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근무조건은 주5일 5시간, 근무기간은 3개월, 임금은 1일 2만7천900원으로 조정되고 참여자격은 각 단계별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인천시 시민으로 재산은 1억3천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실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 사업 등이 일자리 우선 추진사업으로 진행된다.

▲ **地下の駅勢圏における安全管理の強化** 富平など地下に続く複数の利用施設に、新概念の有無線技術を融合させた、災害・安全の統合予・警報システムが、全国で初めて構築される。予・警報システムの構築により、各種災害の発生時に迅速に避難できるようになった。富平駅周辺の災害安全予・警報システムは、火災などの災害・危機的状況の発生、リアルタイム避難警報・放送、管理者・店主リアルタイム・メッセージ、転送・訓練など、災害対応の精鋭化、災害対応機関の迅速な出動発令、ショッピングや乗り換えなど、安全な地下空間づくりが可能となった。

▲ **지하 역세권에 안전관리 강화** 부평역 등 지하로 연계된 다중이용 시설에 신개념 유무선 기술을 융합한 재난·안전 통합 예·경보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구축된다. 예·경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됐다. 부평역세권 재난안전 예·경보 시스템

은 화재 등 재난·위기 상황 발생, 실시간 대피 경보·방송, 관리자·접주 실시간 문자, 전송·훈련 등 재난대응 정예화, 재난 대응기관 신속한 출동발령, 쇼핑·환승 등 안전한 지하공간 조성
이 가능해졌다.

▲ **障害手当の引き上げ** 低所得障害者世帯の生活安定のため、障害手当が昨年より、1万ウォン引き上げられる。支援対象は、18歳以上の登録軽症障害者(3～6級)のうち、国民基礎生活保障受給者、及び次上位階層者。単価は基礎受給者(一般の裁可)4万ウォン、次上位階層者4万ウォン、基礎受給(保障施設)2万ウォンとなる。

▲ **장애수당 인상**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경증장애인(3~6급)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단가는 기초수급자(일반재가) 4만원, 차상위계층 4만원, 기초수급(보장시설) 2만원이다.



▲ **すべてのレストランで禁煙** 規模に関係なく、すべてのレストランで禁煙が義務付けられることはもちろん、ビリヤード場と、スクリーンゴルフ場でも禁煙が推進される。通常のタバコはもちろんのこと、電子タバコを禁煙エリアで喫煙した場合も、罰金10万ウォンが課せられる。

▲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금연이 추진된다.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다.

▲ **免許取得日による、美容師の業務範囲が変更** 美容師の国家施術資格取得日を基準とし、免許業務範囲が変わる。2008年1月から2015年4月16日までの美容師資格・取得者は、「手の爪と、足の爪の手入れと化粧」が業務範囲に含まれ、2015年4月17日以降、美容師免許を受ける者に対しては、「手の爪と、足の爪の手入れと化粧」が除外される。

▲ **면허 취득일로 미용사 업무범위 달라진다** 미용사의 국가기술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업무범위가 달라진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업무범위에 포함되고, 2015년 4월 17일 이후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이 제외된다.



▲ **微細粉塵・警報制の圏域拡大** 微細粉塵・警報制は、汚染度が環境基準を超え、市民の健康や財産、動植物の生育に深刻な悪影響を及ぼす恐れがあるときに施行される。警報施行濃度は、微細粉塵PM-10とPM-25に分けられ、注意報と警報の基準をより細かく拡充し、市民の健康が配慮される。

▲ **미세먼지 정보제 권역 확대** 미세먼지 정보제는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한다. 정보시행 농도는 미세먼지 PM-10과 PM-25로 나눠 주의보와 경보 기준을 더 세밀하게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Incheon Now

지금, 인천은

仁川市、市民とともに円卓会議



去る12월 18日、仁川市庁中央ホールで、地域のオピニオンや市民などが参加した中、第1回仁川市民円卓会議が開かれた。討論者は、地域社会の学界・経済・産業界、文化・福祉系、教育系など、様々な分野の団体推薦

と直接ホームページで受け付けした市民など、計350人で構成された。議論のテーマは「あなたが仁川の所有者」と民選6期期公約の実践計画を聞き、小主題である「最も優先的に実践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と「私が市長であれば、まず最初にすべきこと」などについて議論した。ユ・ジョンボク仁川市長が直接主宰した今回の円卓会議は、民選6期が樹立した公約実行の詳細計画を発表し、市政運営の方向を定めるにあたり、市民の声を積極的に反映するという目的から開催。公約の実践計画は、ユ・ジョンボク市長が直接市民に発表して後、100分間、10人ずつで構成された30個のテーブルごとに、市民討論が行われた。

인천시, 시민과 함께 원탁 회의

지난 12월 18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지역 오피니언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인천 시민 원탁회의가 열렸다. 토론자는 지역사회의 학계, 경제·산업계, 문화·복지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 추천과 직접 홈페이지에 접수한 시민 등 총 350명으로 구성됐다. 토론의 주제는 ‘당신이 인천의 주인입니다로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을 들고 소주제인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와 ‘내가 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토론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주재한 이번 원탁회의는 민선 6기가 수립한 공약 세부실행계획을 알리고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약실천계획은 유정복 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발표하고 이후 100분간 10명씩으로 구성된 30개 테이블별로 시민토론이 진행되었다.

仁川市 人事予告制 初の施行

仁川市は、2015年1月1日の組織改編人事を断行する前に、昨年12月に人事予告制を施行。人事予告制は、正式人事発令前に人事変動事項を公開し、意見収斂過程を経て最終確定方式により公職内部では、人事権者と直接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きるという利点がある。人事予告制と共に、希望補職制も拡大施行。

人事案の予告制と希望補職制を全国で初めて導入した仁川市は、公正かつ透明な人事を定着させていくことはもちろん、能力だけが人事の基準となることから、任された仕事に最善を尽くす組織を作るという意味合いだ。

인천시 인사예고제 첫 시행

인천시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인사를 단행하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인사예고제를 시행했다. 인사예고제는 정식 인사발령 전에 인사 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부에선 인사권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사예고제와 더불어 희망보직제도 확대 시행했다. 인사예고제와 희망보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인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능력만을 인사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을 담았다.

納骨堂の名前は、「平穏党」



仁川市は、仁川家族公園内の奉安施設である新規納骨堂の名称を「平穏党」とし、最終選定。平穏党は、仁川家族公園内の追悼の家、金馬銃、満月堂に続き、第2段階事業により新築された4番目の奉安施設。延べ床面積5425.08㎡、地下1階～地上3階、安置基数は、3万5584基の規模で、建築の外館は、江華ドルメンを形象化しており、2012年5月に着工し、今年2月にオープンを抑える。新築された平穏党が開場されると、仁川家族公園は、総9万4425基の安置能力を備えることとなる。

仁川시는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인 신규 봉안당의 명칭을 ‘평온당’으로 최종 선정했다. 평온당은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집, 금마총, 만월당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신축된 4번째 봉안 시설이다. 연면적 5425.08㎡, 지하 1층~지상3층, 안치기수 3만5584기의 규모로 건축 외관은 강화 고인돌을 형상화했으며 2012년 5월 착공해 올해 2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신축된 평온당이 개장하면 인천가족공원은 총 9만 4425기의 봉안능력을 갖추게 된다

봉안당의 이름은 ‘평온당’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인 신규 봉안당의 명칭을 ‘평온당’으로 최종 선정했다. 평온당은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집, 금마총, 만월당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신축된 4번째 봉안 시설이다. 연면적 5425.08㎡, 지하 1층~지상3층, 안치기수 3만5584기의 규모로 건축 외관은 강화 고인돌을 형상화했으며 2012년 5월 착공해 올해 2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신축된 평온당이 개장하면 인천가족공원은 총 9만 4425기의 봉안능력을 갖추게 된다

김민영 편집장
킴민영(김민영)編集長・gem0701@hanmail.net

仁川市 多文化関連機関 連絡先

인천시 다문화관련기관 연락처

仁川市役所 多文化政策課

인천시청 다문화정책과 ☎ 032-440-2866
仁川広域市 南洞区 九月洞 1135-11 パークアベニュービル7階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5-11 파크에비뉴빌딩 7층

中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91-1094
仁川広域市 中区 ジェムリヤン路 122 番洞信用協同組合ビル4階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22 담동신협빌딩 4층

桂陽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41-2860-1
仁川広域市 桂陽区 桂陽山路 102番通り 5 社会福祉会館 3階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南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75-1577
仁川広域市 南区 キョンウォン(경원)大路 890 B25号 (朱安6棟 ポミリジュンビル)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89 5층 (학익동)

南洞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467-3912
仁川広域市 南洞区 マンス6洞 チャンスン路 59-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장승로 59-21

富平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11-1800
仁川広域市 富平区 キルチュ路539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延寿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851-2740
仁川広域市 延寿区 チョンヌン大路 109(タップピオンビル4階)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빌딩 4층)

西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569-1560
仁川広域市 西区 ギョンミョン大路 693番通り 6 (公村洞 305-13)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공촌동 305-13)

東区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773-0297
仁川広域市 東区 ファドジン路 44番通り 21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44번길 21

江華郡 多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2- 933-0980
仁川広域市 江華郡 江華邑 北門通り 11-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11-1

仁川外国人力支援センター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 ☎ 032-431-5757
仁川広域市 南洞区 ノンヒョン洞 636-3 ミョンジンプラザ12階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6-3 명진프라자 12층

ハンヌリ学校

인천한누리학교 ☎ 032-442-2102-4
仁川広域市 南洞区 ノンヒョン洞 642-2 ハンヌリ学校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2-2 인천한누리학교